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 이승엽 선수 파이팅! 소아암 어린이 파이팅!!

100% 희망충전! 일본체험의 추억속으로...

드디어 출발이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오늘이다. 처음으로 우리 운용이와 내가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를 타는 날, 나이 마흔을 넘겼는데 마음이 떨리는 건 우리 아들과 다름이 없다. 잠을 설치고 아침밥도 못 먹고 비싼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둘러 왔는데 일행들은 모두 도착해 있었다.

그 옛날 비행기를 보려고 공항에 온가족이 왔건만 비행기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고 갔던 그날이 오늘은 우습기만하다. 오늘은 구경이 아닌 진짜 1시간 50분을 탈 수 있다. 온가족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단둘이라서 조금 서운하지만 떨린다. 그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나 혼자만이 오늘의 주인공이 된 줄 알고 들떠 있었는데 버스가 쉬는 곳마다 큰 가방 하나씩 들고 버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난 우물 안에 개구리였나 보다. 오늘 우리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랑 이승엽 선수를 만났는데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서로 나누고 나누어 주는 “人”이니까, 운용야 훗날 사랑을 퍼주는 운용이가 되렴~



- 여의도성모병원 김운용 환아 어머니

일본에서,

전 버스 안에서도 일본의 건물이며 사람들, 자동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구경하고, 틈틈이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 뭐든 남겨야한다’는 친구들의 특명을 받들어 작은 순간, 장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

이번 여행에 참가한 친구들 중엔 아직 치료중인 친구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었는데 모두모두 무사히 잘 다녀와서 기쁩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한 친구들에게도 이번 여행은 정말 뜻 깊었을 것 같아요. 일본 여행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얻어 갑니다. 저도 완전히 건강해져서 나중에 꼭 저처럼 아픔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도움을 통해 저희들도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 화순전남대병원 서유나

설마 우리에게까지 기회가 올까...? 하면서도 내심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지석이가 선택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지석이 보다는 오히려 아이 아빠와 제가 더 좋아라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지나서는 병원에서 지석이가 일본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석이의 자량은 끊임 줄 몰랐습니다. 그런 지석을 보니 마음 한편에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무사히 2박3일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첫날 이승엽 선수와의 만남은 뜻밖이면서도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되다니... 재단 측의 노력과 준비에 놀랐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 준 이승엽 선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석이와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둘째날 지석이가 가장 기대하던 디즈니랜드... 정말 환상적인 볼거리와 탈 것들, 지석이에게는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있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날 지브리 박물관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키워 나갈 수 있게 했던 곳으로 기억됩니다.

지석이는 지금 4년째 치료중입니다. 이번 여행으로 아이와 함께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해 늘 아쉽고 미안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린 듯합니다. 그리고 지석이에게 좀 더 발전적인 사고와 경험이 되었으며, 어머니 저에게 또한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번 체험은 앞으로 남은 지석이의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 주신 재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석이가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고생해 주신 동행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서울아산병원
한지석 환아 어머니



벌써 친구들이 보고 싶어집니다. ^^ 생각지도 않던 일본 여행, 지금도 마음이 막 설레네요. 첫 번째 해외여행을 아이들과 함께해서 더 기쁩니다. 여덟 살 곱슬머리 고집불통 아이가 이젠 성인이 되어 우리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뻐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말이예요. 참 많이 힘들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주사 놓는 선생님이 미웠고, 아프지도 않는데 치료받게 하는 부모님이 미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친구들도 그럴 겁니다. 이젠 아프기만 했던 병원생활이 추억이 되었고, 나름대로 기쁨과 감동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특별한 삶을 주셨기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고 넓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알아가라고 고통도 주신 거겠죠.

아이들과 여행을 하며 어릴 적 생각에 가슴 한켠이 저러오기도 했지만, 이젠 아이들 눈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저를 보고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마주앉아 웃으며 병원생활을 얘기하실 날이 올 거예요. 저와 저희 엄마처럼요.^^ 힘내세요. 꼭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거리 선수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되어 끝까지 파이팅 해요~!

— 완치자 김현지

병원학교 운영 현황 및 해외 우수사례 소개

병원학교란? 심장질환, 신장병, **백혈병**, **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중퇴·휴학하던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에서 또래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학교에 복귀해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병원학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국내 병원학교 운영 현황과 해외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내 병원학교 운영 현황

* 대상 : 건강장애학생

* 지원 내용

- 장기입원 혹은 장기통원치료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병원학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또래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원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수업확인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2차 감염이 우려되거나 요양이 필요하여 가정에 있어야 하는 건강장애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대일 화상강의를 통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비가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 이용 방법

진단 → 특수교육대상선정신청서 제출 (학교 · 병원학교) → 건강장애 선정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학교 · 병원학교 수업 및 가정 내 화상강의 병행 실시

- ① **진단서** 혹은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수첩과 **특수교육대상선정신청서**를 **학교나 교육청**에 직접 제출
- ②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인근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
- ③ **병원학교에 직접 문의**

* 운영 중인 병원학교 안내

- 2007년 4월 기준, 전국 19개소 운영 중이며 2007년도 내 5개소 추가 개소하여 총 24개 운영 계획임.

지역 및 병원명	설치연도	연락처	담당교육청	
서울	서울대병원	1999	02-2072-3543	서울 중부교육청
	세브란스병원	2000	02-2228-7702	서울 서부교육청
	한양대병원	2005	02-2290-8737	서울 성동교육청
	서울아산병원	2006	02-3010-6068	서울 강동교육청
	삼성서울병원	2006	02-3410-0847	서울 강남교육청
	국립서울병원	2006	02-2204-0322	서울 성동교육청
부산	부산대병원	2004	051-254-0171	부산시교육청
	인제대부산백병원	2005	051-890-6676	
	동아대의료원	2005	051-240-5616	
대구	영남대의료원	2006	053-620-3438	대구시교육청
인천	가천의대부속길병원	2006	032-461-0942	인천시교육청

지역 및 병원명	설치연도	연락처	담당교육청	
대전	건양대병원	2006	042-600-6925	대전교육청
	충남대병원	2006	042-259-8298	
울산	울산대병원	2007	052-210-5423	울산시교육청
경기	국립암센터	2006	031-920-0968	고양시교육청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2006	041-550-6893	충남교육청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2006	061-379-7935	전남교육청
경남	경상대병원	2004	055-750-8716	경남교육청
	국립부곡병원	2005	055-520-2652	

2007년도 신설 병원학교 : 울산대병원(3월-개교), 서울시립아동병원(5월), 원자력병원(8월), 경희대의료원(9월), 인하대의대부속병원(9월), 경북대병원(10월)

미국 오하이오주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Cincinnati Children's Hospital 내 병원학교는 3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 2월을 기준으로 총 442명의 어린이가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소아암 환자는 약 40여 명입니다.

* 운영 방식

- 정교사는 수업 자료를 디자인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통해 개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원봉사자는 교육 내용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고 정교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 정해진 시간표는 없으며 개인의 특성에 맞춰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정교사는 환자의 출석기록과 함께 병원생활에 관한 내용도 학교로 보냄으로써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특징

-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총 3개의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교실에 담당 정교사가 배치됩니다.



- 퇴원 후 지원 : 어린이 병원학교 내의 자체적인 졸업식이 있으며, 졸업 및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은 학교 담임교사, 급우를 대상으로 소아암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대입 시 지원 : 대입 시 특혜는 없지만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 서비스나 과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사 조직 : 이곳 교사 두 명이 미국의 어린이 병원학교 교사들을 조직하며, 모든 미국의 어린이 병원학교 프로그램은 이 병원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습 자료와 교과서를 비롯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보 교환 및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안내자료 및 경희대 미국 병원학교 방문기 중 발췌〉



희망을 드려요~

2001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만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1년 봄..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어느 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볼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손으로 눌러 보았지만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여겨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고 의사선생님께서서는 그냥 가벼운 염증이라고 하시면서 며칠분의 약을 지어 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때를 어기지 않고 챙겨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이상하게 여겼는지 피검사를 해보자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2~3회 이상 채혈을 하고나서 의사선생님께서서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좋지 않던 느낌은 불안한 마음으로 바뀌었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이었습니다. 병동에 들어섰을 때의 그 두려움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아.... 나에게 정말 큰 일이 벌어졌나보다'라는 생각을 하며 병실로 들어섰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머리카락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나도 저렇게...'라며 밀려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제 앞에 닥친 현실은 저의 불안한 생각을 빗겨가지 않았습니다.

병동에 입원한 이튿날 골수 검사를 하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을 때, '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고 그 동안 밀어내려고 했던, 내 일이 아닐 거라고 부정하던 제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날 어머니께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결과를 듣고는 얼마나 우셨는지 눈에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도 많이 우셨는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힘 든 과정이었지만 그 속에서 소중한 추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제 옆에서 잘 지켜주셨던 할머니. 하지만 그런 할머니께 직접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할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라고... 이 기회를 통해서나마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경상도 사나이였나 봅니다. 이 짧은 말이 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지.. 이렇게 든든하게 옆을 지켜주셨던 할머니와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저는 병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치료를 맡으셨던 교수님과 선생님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생활이 큰 고통이었고 힘든 과정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힘든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의 의사가운을 입고 온 병동을 휘젓고 다녔던 저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입가에 웃음을 짓게끔 합니다. 그때는 그런 장난이 하나의 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너무도 힘들게 했던 의사선생님의 가운을 입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마치 제가 의사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쾌감이 저의 치료 자세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추억도 있었지만, 그래도 병원은 너무 싫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싫고, 병원 특유의 냄새까지도 너무 싫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문득문득 치료과정, 병원생활, 같이 치료받던 친구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병원이 이젠 제게 있어서 한 몸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04년 겨울, 긴 터널의 끝자락

힘든 시간이 지나고 무사히 치료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있어 그 순간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뜨게 해 주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에 태어난 느낌.... 그 느낌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치료가 끝난 후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인가요? 전 그럴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철이 없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단순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세계 일어나는 상황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런 자세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병실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너무도 많은 생각들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까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생각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상황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대학에서 병원의료행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대이긴 하지만 어느 4년제 대학교 보다 실속이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제가 하고 싶어하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실습을 하면서, 예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자 친구도 생겨서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ㅎㅎㅎ

제가 부자는 못되어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소아암을 앓고 있는 여러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어린나이에 소아암을 앓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과 고통을 겪고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고통과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 넘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의 사랑과 따스한 눈길을 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밝은 내일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박 대 열

1987년 2월 13일 생

2001년 4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

2004년 치료 종결

현재 대경대학 병원의료행정학과 2학년 재학 중



훈사랑의 집에서는...

SBS가 후원하는 문화예술체험

지난 4~5월은 문화예술체험의 계절이었습니다. 전남, 대구, 부산에서 진행된 문화예술체험은 환아와 가족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를 후원해 주신 SBS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산·전남지역 - 뮤지컬 '파워레인저 매직포스'



지난 4월 14일과 5월 5일 각각 전남과 부산 지역 친구들이 뮤지컬 '파워레인저 매직포스'를 관람하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 중에는 객석으로 뛰어드는 악당을 보고 무섭다고 우는 친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마치 자신이 악당과 싸우는 파워레인저가 된 듯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파워레인저"를 외치며 변신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뮤지컬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야말로 우리를 세상이라며 깔깔거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더 멋지고 재미있는 문화예술체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 대구지역 - 뮤지컬 'JUMP'



5월 11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JUMP"공연을 보았습니다. 열띤 경쟁을 물리친 30가족과 함께 정말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대구에서는 보기 힘든, 말로만 듣던 공연을 바로 눈앞에서 보던 아이들의 얼굴은 놀

라움과 즐거움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 아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어머님들은 먼저 나서서 양보하시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오래된미래'기획사 측에서는 어머님들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만을 위해 사진촬영과 싸인회를 진행해주신 "JUMP"공연팀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

서울 우체국 훈사랑의 집

가족 뮤지컬 매직쇼 "마술램프" 관람

지난 5월 3일. 삼성SDS의 후원으로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은 대학로 나들이를 하였습니다. 9명의 삼성SDS 자원봉사자님들과 함께 가족 뮤지컬 매직쇼 "마술램프" 관람도 하고, 공연 후에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었습니다.

치료 때문에 병실에서만 생활하다가 오래간만에 공연도 보고, 여유롭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뽕뽕만금이나 따스한 마음씨를 가진 삼성SDS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신촌 우체국 혼사랑의집

쓱쓱쓱~ 대청소 하는 날

지난 5월 16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동발전 건설처 봉사자분들께서 신촌 혼사랑의 집을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녀가신 자리는 번쩍번쩍 빛이 났지요.^^
 얼마 전 시설 보수공사를 하고 난 뒤라 쉼터 구석구석 먼지도 많고, 옮겨야 할 짐도 많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쉼터가 말끔해졌습니다.
 여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단결된 모습으로 활동에 임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류성대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남동발전 건설처 자원봉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희선 • 임희은>



부산 우체국 혼사랑의집



부산대학교병원 부모교육 시작!!

지난 5월 23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부모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 속에 시작된 부모교육은 치료과정 상 힘들었던 이야기와 질병에 대한 구체적 사항까지 많은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아암 아동의 가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은 부모님들께서 완치희망을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부산대학교 병원학교에서 열리게 될 부모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알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시원한 형제캠프에 참가하세요!!~

제7회 소아암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

형제캠프는~!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장기입원과 잦은 외래치료를 늘 홀로 집에 남겨져야 했던 형제들.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관심에서 조금은 멀어진 형제들만이 모여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수 있는 자리입니다.

- **참 가 대 상** :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형제들(선착순 40명)
- **연 령** :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 **일 시** : 2007년 8월 8일(수) ~ 8월 10일(금)
- **장 소** : 금호 화순리조트(전라남도 화순 소재)
- **참 가 비** : 1인당 10,000원
- **신 청 기 간** : 2007년 7월 27일 금요일
- **신청 • 문의**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2)766-7671~3
 각 우체국 혼사랑의 집 (서울, 신촌, 대구, 부산, 전남)

2006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재단은 2006 MBC '어린이에게 새생명' 기금의 지정기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378,007,006원은 소아암 환자 치료비(제대혈구입비 및 조혈모세포채집비 포함)와 재활치료비 지원, 그리고 소아암 환자 심터 환경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기금전달



아름다운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윤리경영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달된 1억 5,000만원은 소아암 환자를 위한 직접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을 심어요!!



지난 4월 5일, 한국남동발전(주)의 후원으로 '제6회 희망나무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본 행사는 '완치'라는 희망을 심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금년 참가 가족들은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며 튼튼한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언젠가 암을 이기고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흙 한줌, 물 한 바가지에도 정성을 담았답니다.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주신 한국남동발전(주), 그리고 소아암 어린이들의 희망동산을 마련하여 희망나무를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영흥화력본부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5년간의 나눔 - 제17회 경기가족견기대회

지난 4월 29일, 화창한 봄 날씨 속에서 제17회 백혈병어린이돕기 경기가족견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동문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11,270,500원의 후원금이 모



금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마다 열리는 경기가족견기대회에서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모금활동이 시작된 지 꼭 15년째 되는 해입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을 넘는 오랜 시간동안,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고등학교 동문 여러분과 경기고등학교동창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충전 일본체험' 다녀왔습니다.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박 3일간의 '희망충전 일본체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TV에서만 보았던 도쿄돔구장에 직



접 가서 이승엽 선수도 만나고, 멋진 레인보우 브릿지와 자유여성상을 볼 수 있었던 오다이바도 들리고, 일본 왕이 살고 있는 황거, 아사쿠사 센소지, 꿈의 나라 디즈니랜드도 가 보았습니다. 또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멋진 만화를 제작, 감독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설계한 지브리 박물관까지.. 2박 3일을 정말로 숨차게 그리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이번 여행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러분,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 선수, 함께 동행해 주신 서울대학교병원 신회영 교수님,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들과 늦은 밤까지 경험을 나누어준 완치자 김현지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신 박수진 가이드님,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이번 여행의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기에 어느 여행보다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골프대회 개최



지난 4월 27일, (재)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주최, 보잉 후원, (주)휴니테크놀러지스와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공동주관한 2007 자선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뜻을 같이 한 79명의 후원자들이 함께한 이날 총 61,599,611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주)휴니테크놀러지스,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보잉,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 후원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사랑나눔'

한국관광공사는 4월 캠페인 '사랑나눔' 행사의 일환으로 펼친 '사랑의 헌혈'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랑을 모은 헌혈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의 포상금, 총무팀의 포상금까지 모두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2006년 헌혈증 지원의 인연을 시작으로 소아암 어린이 제주체험, 그리고 이번 '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도 아낌없는 나눔을 보여주신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뮤지컬 '라이언 킹' 관람



봄벌이 따뜻한 4월, 세계에 극찬한 디즈니 뮤지컬 '라이언 킹'을 관람하였습니다. 강풍에 황사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에 무척 걱정을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청명한 날씨가 나들이 기분을 한층 더해주었습니다. 뮤지컬 '라이언 킹'은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눈을 땔 수 없는, 명성만골이나 훌륭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웅장한 무대규모를 비롯해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특히 주인공 심바의 용기와 사랑에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매우 즐거워 하셨습니다. 3시간의 공연이 끝난 후 민속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푸짐한 한정식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도 했습니다. 관람 후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뮤지컬 이야기를 했다는 친구들의 소식을 전해들 수 있었습니다. 소아암 가족들에게 멋진 문화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봄벌이 따뜻한 4월, 세계에 극찬한 디즈니 뮤지컬 '라이언 킹'을 관람하였습니다. 강풍에 황사비가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에 무척 걱정을 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청명한 날씨가 나들이 기분을 한층 더해주었습니다. 뮤지컬 '라이언 킹'은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눈을 땔 수 없는, 명성만골이나 훌륭한 뮤지컬이었습니다. 웅장한 무대규모를 비롯해 배우들의 탁월한 연기, 특히 주인공 심바의 용기와 사랑에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매우 즐거워 하셨습니다. 3시간의 공연이 끝난 후 민속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푸짐한 한정식으로 맛있는 저녁식사도 했습니다.

삼성생명여의도지점과 함께한 '작은 미소, 큰 희망'

지난 5월 16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캐로로 중사와 짱구가 방문했습니다.^^ 다음 아님, 삼성생명여의도지점 FC 봉사자들의 방문이셨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탈 인형을 쓰고, 예쁜 선물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삼성생명여의도지점 FC 봉사자들께서는 아이들 선물 하나하나 손수 포장해 주시는 정성에, 무거운 탈인형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캐로로 중사와 짱구의 병실방문에 친구들은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소아암 부모회 지원

재단은 2006년부터 한국백혈병소아암부모연대(대표 강태석)를 통해 각 병원 부모회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액은 총 600만원으로, 12개 병원 부모회에 지원되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각 병원 부모회 임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학교 속으로 GO! GO!!

지난 4월 서울 장충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의 학급에서 소아암 교육 프로그램 "학교 속으로 GO! GO!!"가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반 친구들 대부분 환아가 치료 받고 있는 (또는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머리카락이 왜 빠지는지, 마스크를 왜 쓰고다니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교육 전과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아이들이 함께 완성한 희망나무에서도 반 친구들의 환아에 대한 이해가 상당부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위해 협조해 주신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무엇보다 교육에 집중해서 참여해 준 반 친구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선 02-363-7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기금 지원 환아 소개 (2007. 3. ~ 2007. 5.)

1. 메릴린치증권기금 : 700만원

한 보 람 (중증장애물량성빈혈/부산대학교병원/부산)

2. 우체국 헌사랑기금 : 각 300만원

성 재 혁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송 아 현 (뇌종양, 급성골수성백혈병/국립암센터/대구)

이 윤 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울산)

이 창 민 (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경남)

3. 차카게살자 기금 : 각 500만원

이 창 민 (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경남)

정 진 호 (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충남)

4. LG전자기금 : 200만원

이 윤 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울산)

5. 남동발전기금

유 창 열 (뇌종양/삼성서울병원/대전) : 100만원

김 연 수 (망막모세포종/세브란스병원/충남) : 100만원

유 태 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기천의대 길병원/인천) : 661만원(지정기탁)

6. 금호아시아그룹

홍 창 빈 (망막모세포종/원자력의학원/부산) : 100만원

엄 예 진 (급성림프구성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 500만원

7. 모태산부인과 : 매월 50만원 (10개월)

김 윤 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충남대학교병원/충북)

8. 태진인터내셔널 : 100만원

박 은 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전북)

9. SBS기금 (서울대학교병원 환아 지정기탁)

김 은 지 (망막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서울) : 500만원

이 현 한 (교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500만원

장 소 연 (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500만원

정 은 수 (황문근육종/서울대학교병원/부산) : 500만원

최 인 규 (만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500만원

정 도 혁 (연소성골수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1,000만원

조 강 산 (유인육종/서울대학교병원/경북) : 1,000만원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치과협회 지정기탁)

김 지 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505만원

전 진 경 (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500만원

11. 객준철 후원자 (지정기탁) : 100만원

김 병 주 (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병원/대구) : 100만원

12. 류정훈 후원자 (지정기탁) : 30만원

정 도 혁 (연소성골수성백혈병) : 30만원

13. 익명후원자

김 민 태 (악성림프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 매월 50만원

성 민 영 (급성림프구성백혈병/경상대학교병원/경남) : 매월 30만원

임 수 연 (급성림프구성백혈병/기천의대 길병원/인천) : 매월 30만원

이 유 준 (간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충남) : 매월 50만원

김 민 재 (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 50만원

김 준 우 (신경모세포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 50만원

박 세 희 (악성림프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 50만원

최 동 준 (황문근육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 50만원

14. 삼성네트웍스 - 지정기탁 : 200만원

신 현 (뇌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 200만원

징검다리기금 지원환아 (2007. 3. ~ 2007. 5.)

권무한(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북) 200만원

김유진(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충남) 400만원

김정재(성상세포종/한양대학교병원/경기) 300만원

박소현(수모세포종/동아대학교병원/부산) 300만원

오세현(망막모세포종/대구카톨릭병원/대구) 100만원

임소희(간아세포종/고신의료원/부산) 300만원

지용범(수모세포종/인하대병원/인천) 400만원

장병관(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250만원

한재원(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제주) 300만원

김민진(뇌종양/이대목동병원/강원) 300만원

김진재(뇌종양/동아대병원/경남) 300만원

윤호수(뇌종양/을지대병원/대전) 500만원

한 달에 한 번 어린 천사들을 만나는 기쁨



강장식 목사
미션드림 선교회 대표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우리는 어린 천사들을 만나는 소중한 기쁨의 설레임을 안고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달려간다. 한번 오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힘들지 사실 찾아와 봉사해본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참 편안한 병원 분위기에 친절한 복지사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눈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참 잘 왔구나하는 생각과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풍선아트, 가스펠매직, 페이스페인팅등 약 20여 가지 전문 문화컨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미션드림 선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선교회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풍선아트로 성모병원에서 봉사해오고 있다.

복지사 선생님이 풍선아트 시간이 있음을 알리면, 병실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 중 한명이 아이들에게 만들기 쉽고도 재미있는 풍선아트 교실을 연다.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소리와 풍선 터지는 소리 그리고 어린이들보다 더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의 소리 그 어우러져 한동안 병원은 축제의 분위기가 한껏 솟아오른다. 작은 강아지 풍선을 받아들고 좋아하는 아이들, 하나라도 더 자신의 어린자녀에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하시며 열심히 배우시는 부모님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매번 몽클한 감동을 느낀다.

3년여 전,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어려운 풍선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던 아이가 있었다. 요령있는 베테랑 봉사자답게 “오늘은 그 모양을 만드는 날이 아니야. 다음에 와서 만들어줄게”하며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다. 주변의 회원이 그 아이 때문에 곤란해 하는 것을 보면서도 다른 더 많은 아이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합리화로 그 아이를 그냥 지나쳐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셋째 주 화요일 회원들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고, 불현듯 한 달 전 좀 골치 아프게 했던 그 녀석이 생각나 옆에 있던 복지사 선생님께 그 꼬마 녀석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잠시 후 복지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하는 충격에 잠시 말문이 막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골치 덩이 녀석이 우리의 방문 일주일 후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녀석을 떠올리면 미안한 생각에 마음이 아파 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항암 치료하느라 얼마나 힘든 날을 보냈을까? 그래서 좀 날카롭게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조른 것 뿐인데, 그 소중한 아이를 외면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도 내가 목사요. 한 선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사랑이 필요했던 아이를 그냥 그렇게 모른 척 지나갔다는 것이 지금도 너무나 가슴 아픈 후회로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어린것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다.

아주 짧은 순간 만났던 그 골치 덩이로 보였던 천사 덕분에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아무리 곤란하게 하는 어린이가 있어도 이젠 그 때처럼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겠다고... 매달 셋째 주 화요일 열쇠 반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이것이 나의 인생에 아마도 가장 큰 기쁨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미션드림 선교회 정보 보기: www.misiondream.net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 쓰고, 마음 부자되세요!!

신한아름다운 카드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신한카드에서 2007년 6월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는 카드 사용에 따라 기부전용 포인트인 아름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며, 적립된 포인트는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됩니다. 예쁜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도 쓰고, 소아암 어린이도 돕고,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보세요!

Shinhan HelloKitty Card(아름다운 카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내친구!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는 카드 사용에 따라 기부전용 포인트인 아름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며, 적립된 아름포인트는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되어 소아암과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익형 신용카드입니다.

1. 아름포인트 0.5~0.8% 적립

- 일반 가맹점 이용시 0.5% 적립
- 아름다운 가맹점 이용시 0.8% 적립
- 아름스 홈페이지(www.arum.in.co.kr)에서 기부처 변경 및 기부 가능

2. 헬로키티 캐릭터 샵 이용시 아름포인트 15% 적립

- 이용금액의 15%를 아름다운 포인트로 적립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이용금액(입시불+할부)이 10만원 이상시 적립됩니다.
- 단, 신규 발급후 3개월간은 실적에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 적립 가능 매장 리스트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 / 명동 / 용산 스페이스원 / 입구점
(경기) 오포정 (강박) 광주 월드컵 (강남) 동대문디자인아카데미 (부산) 부평점(매장
안내 및 문의 : ☎ 02-543-3810

스타벅스 컴사이즈 업그레이드

- 1월 1회, 월10회 업그레이드 가능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이용금액(입시불+할부)이 10만원 이상시 할인됩니다.
- 단, 신규 발급후 3개월간은 실적에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3·6·9 day 주유시 80포인트/ℓ

-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주유시 1ℓ 당 80포인트 적립
(정유사 고시 휘발유가 기준 / 월 1회 10만원에 한함)
- 현대오일뱅크/GS칼텍스/ET LPG 충전시 30포인트/ℓ 적립
(1ℓ 당 700원 정액 기준, 월 1회 10만원에 한함)

3·6·9 day?
날짜 앞뒤에 3.6.9 숫자가 들어간 날(3, 6, 9, 13, 16, 19, 23, 26, 29일)
※ 정유사별 고시 기준에는 당시 홈페이지(www.shinhanccard.com)에서 확인 가능
※ 본 서비스는 2007년 12월까지 제공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헬로키티 아름다운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아름포인트는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정기 기부됩니다.**

- 1만포인트 단위로, 월별 정기 기부
- 정기기부 해지/변경 :
아름스 홈페이지 (www.arum.in.co.kr) 내(아름상자) 기부내역
- ※ 기부하신 아름포인트는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20% 할인

- 1월 1회, 연간 12회 할인 가능
- 1건당 최대 40,000원 할인 가능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이용금액(입시불+할부)이 10만원 이상시 할인됩니다.
- 단, 신규 발급후 3개월간은 실적에 관계 없이 제공됩니다.

**외인클럽(외인정보, 할인) + 민병철어학원 최고 40%할인 + 휴대폰 벨소리
월회 무료제공 + 프리미엄 할인쿠폰제공(공연, 미식, 문화, 할인 분야)**

- ※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서비스 내용은 당사 및 제휴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card.com)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방법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면
“신한 헬로키티 아름다운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KCLF

14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시

■ 소개의 글

부모와 자식 사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인 도종환은 이 시집을 소개하는 글에서 부모와 자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을 맺은 사이라고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낳기 전에 자식을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 없으니 보통 깊은 인연이 아닌 게다. 부모로서 모든 준비를 끝내고 아이를 맞는 것 또한 아니고 자식 역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 대한 공경심과 도리를 알고 태어나지 않으니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사랑과 자애를 배워나가며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시집은 여러 시인들에 의해 사랑하는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자식의 마음,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으며 세상을 보는 지혜와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통해 깊이 있는 삶의 통찰을 가지게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각 시에 대한 도종환 시인의 친절한 해설은 공감할만하고 때로는 시를 통한 깨달음을 돕기도 한다.

〈안정희 미술치료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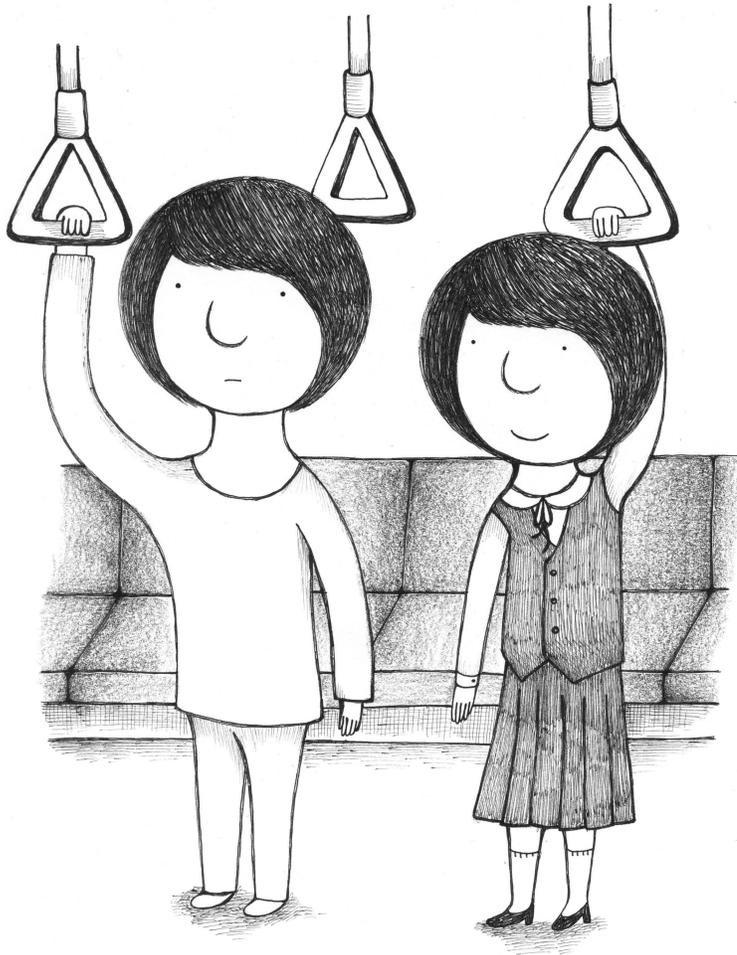
■ 내 용

이 시집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시,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는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다이아나 루먼스의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라는 시는 진정한 아이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도종환 시인은 부모가 세워 주어야 할 것은 미래의 풍요로운 집이 아니라 지금 당당하게 자녀야 할 자존심일거라 말하고 있다. 김종길의 〈성탄제〉와 심순덕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에서는 아파서 숨이 넘어가는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약을 구해오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한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다. 양성우의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에서는 그 어떤 작은 것일지라도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귀하고 소중한다고 한다. 도종환은 그 작은 것들이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실되고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저자 소개

엮은이 도종환 시인 : 시집 《접시꽃 당신》, 《부드러운 직선》, 산문집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등이 있다.

그림 이수동 : 미술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문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16번의 개인전 과 150회가 넘는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가끔, 가슴이 울렁거려서 내 자신이 참아지질 않을까가 있다.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다닐때보다 나아진 게 없네.

무... 그냥 이렇게 훌훌 털고 사는 수밖에... ^^

글: 그림 소복이.
www.sobogi.net

♥ 한뜻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2007. 3. 1 ~ 2007. 5. 31/ 가나다 순입니다)

김용일	김지선	민윤희	박현미
이윤석	조은영	한미진	

◆ 2007년 5월 31일까지 840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만세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2007. 3. 1 ~ 2007. 5. 31/ 가나다 순입니다)

강희석	김동근	김보건	김석규
도미자	손운호	오정환	이의성
이현우	조상현	최승희	하정옥

◆ 2007년 5월 31일까지 1,884분이 만세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협 : 029-01-176943
- 우체국 : 012989-01-003327
- 신한은행 : 310-03-002396
-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알려드립니다!!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는 소식지와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주소변경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재단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매년 보내드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영수증을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는 후원자님들이 많으십니다. 평소 우편물 수령이 잘 되지 않은 경우나 주소변경 사항이 있으면 재단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는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7.3.~ 2007.5.)



이 민 재 - 1.500만원
 급성골수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울산



양 유 빈 - 1.500만원
 중증재생불량성빈혈/서울아산병원/인천



성 재 혁 - 1.200만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경북대학교병원/경북



황 민 영 - 1.500만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서울



김 미 경 - 1.500만원
 중증재생불량성빈혈/부산백병원/경남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7년 5월 31일 현재)

참여후원자 : 3,244명

구좌수 : 20,857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7. 3. 1 ~ 2007. 5. 31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경남은행 CMS	정재은
국민은행 CMS	김남진 박진현 이미순 이재은 이현준 정유정 최명목 최종열 한경희
기업은행 CMS	김수경
농협 CMS	양정현 이혜영 정희영 최장미
부산은행 CMS	남순옥
신한은행 CMS	심인영 오두환 정정재
씨티은행 CMS	김택상
외환은행 CMS	이성철
우리은행 CMS	김오미 백우진 심창수 윤재선
하나은행 CMS	김수경 박상일 황현정

후원계좌안내

- 경남은행 : 514-07-0175564
- 광주은행 : 200-107-315315
- 국민은행 : 031-01-0414-356
-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 농협 : 029-01-170940
-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 부산은행 : 070-01-021379-8
- 외환은행 : 141-22-00799-6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체국 : 012989-01-003313
- 제일은행 : 225-20-385050
- 신한은행 : 367-01-192434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 씨티은행 : 100-59711-251

·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시련점들이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약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 재단사무국으로 변경하실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사랑의 헌혈증서 (2007. 3. 1 ~ 2007. 5. 31)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권진욱(3)	명동손국수(53)	서울대학교 학군단(47)	신준호(2)
제일약품주식회사(29)	최선영(2)	한국관광공사(86)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11)

♠ 특별 후원금

2007 3월	김계자	100,000	롯데닷컴(주)	1,160,448	서호진	100,000
4월	경기고동창회 중앙일보사	11,270,500 1,000,000	롯데닷컴(주) 최선애	1,038,082 100,000	이영욱 한국관광공사	100,000 750,000
5월	롯데닷컴(주) 하이에어코리아(주)	1,030,348 500,000	미건종합건축사무소	300,000	이진섭	300,000

♠ 후원물품 (2007. 3. 1 ~ 2007. 5. 31)

AMC 목욕세트	63시티 음악회행사후원	곽기백 음료수
김상호 과일	김새림 과일	박미경가모클리닉 가발
삼성생명여의도지점	미니화분 사탕 초콜렛 봉제인형저금통	희망나눔책운동본부 도서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7년 여름호는  SBS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